

유관순 열사 태권도 퍼포먼스 참여자의 정체성 구성 경험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Construction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n a Taekwondo Performance Honoring Yu Gwan-sun

윤 원 정*

Won Jeong Yun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태권도 퍼포먼스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어떠한 정체성 구성 경험을 하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충남 태권도시범단의 「유관순이 돌아왔다!」, B대학교 열린예배 「사랑아」, 뮤지컬 「조선의 불꽃」 공연에 참여한 B대학교 태권도전공 학생 5명(남 3, 여 2)이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가 제시한 6단계 주제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기존 태권도 시범단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상위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상위주제는 ‘역사와의 만남’, ‘몸으로 느끼는 독립정신’, ‘정체성의 확장’, ‘공연을 통한 성장’이었다.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를 태권도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역사 계승자’, ‘태권도인’,

<http://doi.org/10.56475/ygsr.2026.31.1.147>

논문투고일 : 2026.05.05. 논문심사일 : 2026.05.19. 게재확정일 : 2026.06.05.

* 체육학박사, 백석대학교 국제교류처 연구위원(E-mail: 977420@naver.com)

Doctor of Physical Education, Research Fellow a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Baekseok University

‘퍼포머’라는 다층적 정체성을 구성하였으며, 반복적 참여를 통해 정체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역사교육과 정체성 형성의 효과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유관순, 태권도, 퍼포먼스, 정체성, 경험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II. 연구 방법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결과	

I. 머리말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기억되며, 한국 사회에서 저항과 희생,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 교과서, 기념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어 왔으나, 역사적 인물을 재현하는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기념의 형식에만 머물지 않으며, 신체 표현과 공연적 서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김은주·김정미, 2012; 김근희, 2007; 류혜숙·김명화, 2009).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도이자 문화콘텐츠로서 기술적 수행뿐 아니라 예의, 인내, 극기, 백절불굴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강조해 왔으며, 태권도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태권도는 단순한 경기 스포츠를 넘어 문화적 의미와 정신성을 지닌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김기창, 2012). 최근 태권도 시범 및 공연 분야는 단순한 격파나 품새 시연을 넘어 서사와 감정, 문화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시범 연구가 기술 중심에서 점차 경험과 문화적 해석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김현희 · 박상희, 2008; 권문희, 2008; Braun & Clarke, 200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태권도 퍼포먼스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충남 태권도시범단의 「유관순이 돌아왔다」, B대학교 열린예배 「사랑아」, 뮤지컬 「조선의 불꽃」은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독립정신을 태권도 동작과 공연적 서사로 재현한 사례들이다. 이들 공연은 단순한 시범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상징을 몸으로 번역하고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일한 역사적 인물이 서로 다른 공연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될 때, 참여자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주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태권도 시범 연구는 주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 시범단 운영, 지도자 신뢰, 기술 완성도, 참여만족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류영하 · 신지영, 2017). 태권도 시범 분야 심리요인 연구는 자신감, 집중력, 열정, 응집력, 기술 훈련과 같은 요소가 시범 수행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류혜숙 · 김명화, 2009).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시범단원의 조직 경험과 관계 요인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권문희,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시범의 성공적 수행이나 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을 재현하는 태권도 퍼포먼스 참여자가 어떠한 정체성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수행,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적 개념이다(조선학, 2007). 특히 공연은 개인이 특정 역할을 몸으로 수행하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적 의미와 새롭게 관계 맺는 장이라는 점에서 정체성 연구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은 이러한 경험의 의미 구조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질적 접근으로 평가된다(Braun, Clarke, & Weate, 2016).

따라서 유관순 열사 태권도 퍼포먼스는 단지 공연 참여의 경험을 넘어, 참여자들이 어떻게 역사와 접속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몸으로 체화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재구성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장면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태권도 퍼포먼스 참여 대학생들의 정체성 구성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참여자들이 공연 준비와 수행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를 어떻게 새롭게 인식하는지, 둘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태권도 동작을 통해 어떻게 체화하는지, 셋째,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들의 자기이해와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넷째, 서로 다른 공연 맥락과 반복 참여가 경험의 깊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 태권도 퍼포먼스 참여자의 정체성 구성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Braun과 Clarke의 6단계 주제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제 분석은 질적 자료에서 반복되는 의미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해석하는 데 유용하며, 정체성 · 감정 · 경험과 같은 주관적 의미 세계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2.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충남 태권도시범단의 「유관순이 돌아왔다!」, B대학교 열린예배 「사랑아」, 뮤지컬 「조선의 불꽃」 공연 중 2개 이상에 참여한 B대학교 태권도전공 학생이었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총 5명(남 3명, 여 2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세 공연 모두에 참여하였고 2명은 두 공연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성별	연령	태권도 시범경력	단	참여 공연
A	여	24세	5년	4단	3개 모두
B	남	25세	5년	4단	3개 모두
C	여	22세	4년	3단	3개 모두
D	남	24세	5년	3단	2개
E	남	23세	4년	3단	2개

3. 자료수집

심층면담은 2026년 2월 B대학교 내 조용한 면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인당 약 60~8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면담 종료 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였다.

4.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는 기존 태권도 시범단 활동 경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주요 질문 영역은 참여 동기, 역사 인식, 역할 체화, 감정 경험, 정체성 변화, 공연 간 차이, 반복 참여의 의미, 삶의 의미를 면담 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의 6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째,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 친숙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셋째, 유사한 코드를 묶어 잠정 주제를 탐색하였다. 넷째, 주제와 원자료의 적합성을 반복 검토하였다. 다섯째, 주제의 핵심 의미를 정의하고 명명하였다. 여섯째, 최종적으로 주제 간 관계를 구조화하여 보고서 형태로 기술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감사추적(audit trail)을 실시하였다. 또한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 기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 가능성, 확증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윤리 측면에서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중도 철회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분석 결과, 4개의 상위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2> 상위 주제(4개)와 하위 주제(10개)

상위 주제	하위 주제
1. 역사와의 만남	1-1. 유관순 열사를 새롭게 알아가기
	1-2. 역사의 무게를 느끼다
2. 몸으로 느끼는 독립정신	2-1. 동작에 담긴 감정
	2-2. 무대 위 몰입의 순간
3. 정체성의 확장	3-1. 역사를 전하는 사람
	3-2. 태권도인으로서의 자부심
	3-3. 퍼포머로 성장하기
4. 공연을 통한 성장	4-1. 시범과 뮤지컬, 다른 무대
	4-2. 반복이 가져온 깊이
	4-3. 관객의 눈물, 나의 보람

1. 역사와의 만남

1) 유관순 열사를 새롭게 알아가기

참여자들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 속 인물에서 살아 있는 역사적 존재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자료 조사, 연습, 장면 이해 과정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삶과 시대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역사 인식이 심화 되었다.

“사실 유관순 열사는 교과서에서 이름만 외웠던 분이예요. 근데 공연 준비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진짜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참여자 C)

2) 역사의 무게를 느끼다.

또한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의 삶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감과 무게를 강하게 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공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습하면서 ‘이건 그냥 시범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분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참여자 B)

2. 몸으로 느끼는 독립정신

1) 동작에 담긴 감정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을 태권도 동작 안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한 감정적 체험을 경험하였다. 만세 동작, 고문 장면,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가는 장면 등은 기술적 수행을 넘어 감정이 실린 몸짓으로 수행 되었다.

“만세 부르는 동작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요. 평소에 하는 발차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참여자 B)

2) 무대 위 몰입의 순간

또한 공연 중에는 감정 몰입이 심화되며 자신이 장면 속 인물이 된 듯한 경험을 하였다.

“관객들 앞에서 만세 부를 때 울컥했어요. ‘진짜 이 순간에 내가 유관순 열사가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몰입감이 있었어요.’ (참여자 C)

3. 정체성의 확장

1) 역사를 전하는 사람

참여자들은 공연을 통해 자신을 역사를 전하는 사람, 태권도인, 퍼포머라는 다층적 정체성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공연 끝나고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싶었고,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참여자 A)

2) 태권도인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태권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 배우고, 품새 하고 근데 이 공연 하면서 태권도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신이 담긴 무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E)

3) 퍼포머로 성장하기

나아가 참여자들은 자신을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퍼포머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시범단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그냥 선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참여자 B)

4. 공연을 통한 성장

1) 시범과 뮤지컬, 다른 무대

참여자들은 공연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였으며, 반복 참여를 통해 정체성의 깊이가 더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유관순이 돌아왔다!’는 몇 년간 충청남도태권도대표시범이라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중요했어요. 근데 ‘조선의 불꽃은 뮤지컬이라 연기력이 더 중요했어요’ (참여자 D)

2) 반복이 가져온 깊이

반복 참여는 단순한 숙련을 넘어 의미의 심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유관순 열사 흉내 내는 느낌이었는데, 공연 거듭하면서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반복하니까 깊어지더라고요.” (참여자 A)

3) 관객의 눈물, 나의 보람

관객의 반응은 참여자에게 공연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A)

IV. 논 의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태권도 퍼포먼스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정체성 구성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은 4개의 상위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로 구조화되었으며, 이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단순한 시범 수행을 넘어 역사 인식, 감정 체화, 정체성 확장, 성장 경험을 포함하는 복합적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는 태권도 정체성을 문화적·역사적 실천으로 확장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와도 맞닿아 있으며, 주제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가 단계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1. 역사와의 만남

1) 유관순 열사를 새롭게 알아가기

참여자들은 공연 준비를 통해 교과서 수준을 넘어 유관순 열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유관순 열사가 단순한 기념적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야 할 구체적 존재로 재인식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면적 지식을 감정적 이해와 내면적 해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는 역사적 인물의 재현이 단순한 정보 학습을 넘어 체험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은 개별 진술 속 반복되는 의미 패턴을 구조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고 있던 인물’이 ‘다시 만나게 된 인물’로 바뀌는 과정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를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수행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하는 인물로 만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이후 다른 하위주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

참여자들은 역사적 인물의 삶을 재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며 공연에 임하였다. 이는 역사 재현 퍼포먼스가 단순한 무대 수행이 아니라 윤리적 태도와 진정성을 요구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기술적 압박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으며, 이러한 감정은 공연 태도를 진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태권도 시범 연구가 자신감, 집중력, 열정, 응집력 등 수행 관련 심리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박선희, 2021; 이영미, 2014), 본 연구는 그 이전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무게를 먼저 체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유관순이라는 역사적 상징이 태권도 동작에 단순한 서사적 배경이 아니라, 수행의 의미를 규정하는 핵심 맥락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역사의 무게’는 이 퍼포먼스를 일반 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질적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2. 몸으로 느끼는 독립정신

1) 동작에 담긴 감정

만세, 투쟁, 저항의 동작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은 독립정신을 신체적으로 체험하였다. 태권도 동작은 이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싣는 표현 언어로 작동하였다. 발차기, 기합, 만세 동작, 쓰러짐과 일어섬의 반복은 각각 분노, 결의, 슬픔, 저항의 감정과 결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몸을 통해 독립정신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태권도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에서도 태권도는 단순한 경기기술이 아니라 정신성과 문화성을 함께 담는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제기된 바 있다(서민화·이경은·허진무, 2025; 정은희·김현정, 2015).

본 연구 결과는 이를 구체적 수행 맥락에서 뒷받침한다. 즉, 유관순 퍼포먼스에서 동작은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였고, 참여자들은 감정을 담을 때 비로소 동작이 ‘살아난다’고 경험하였다. 이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신체를 통해 역사를 번역하는 예술적·교육적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무대 위 몰입의 순간

공연 중 감정 이입과 몰입이 강화되며 참여자들은 강렬한 신체·정서적 경험을 하였다. 이 몰입은 단지 공연에 집중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유관순 열사의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무대 위에서 일상적 자아를 잠시 유보하고 역할 자아에 깊이 동화되는 상태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연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체험으로 전환되었다.

태권도 시범 심리요인 연구에서 몰입과 집중은 중요한 수행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김은주 · 김정미, 2018; 박선희 · 한주희, 2016), 본 연구의 몰입은 기술 수행에 대한 집중을 넘어 역사적 인물과의 감정적 동일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공연예술적 태권도 수행이 일반 시범보다 더 깊은 정서적 충위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유관순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 부분 ‘되어 보는 것’에 가까운 경험을 하였으며, 이것이 독립정신의 체화로 이어졌다.

3. 정체성의 확장

1) 역사를 전하는 사람

참여자들은 자신을 역사 계승자이자 전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의 눈물이나 감사 인사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역사를 매개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강화되었다. 이는 수행의 의미가 자기만족을 넘어 공공적 전달과 사회적 기능으로 확장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참여자에게 문화적 전달자라는 새로운 위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공연을 통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서 “역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체성이 개인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관계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역사 재현 퍼포먼스는 태권도 수련생을 문화적 실천 주체로 성장시키는 가능성을 지닌다.

2) 태권도인으로서 자부심

태권도가 역사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무도라는 인식은 참여자들의 태권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화하였다.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의 삶과 정신을 태권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태권도를 단순한 운동이나 경기 종목으로 보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적 실천으로 재인식하였다. 이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기능 중심에서 문화·정신 중심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태권도의 방향성을 다룬 연구는 태권도가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안미라·김정아, 2013; Yu Gwan-sun, 2018; *Unsung Heroes of Methodism*, 202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자부심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즉, 태권도를 통해 우리 역사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수련 경험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교육이 기능 훈련을 넘어 자문화적 자긍심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퍼포머로 성장하기

단순한 수련생을 넘어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퍼포머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공연을 반복할수록 기술 수행 능력만이 아니라 표정, 시선, 호흡, 감정 전달, 장면 이해 등 복합적 표현 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을 하나의 퍼포머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태권도 시범단원의 역할이 기술 시연자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과 서사를 구현하는 표현자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태권도 시범 연구가 시범단의 수행, 조직, 심리기술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채수미, 2022), 본 연구는 역사 재현 퍼포먼스가 참여자에게 예술적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퍼포먼스 정체성은 단순히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과 감정을 교환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조선학, 2007). 따라서 이 하위주제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무도와 예술의 경계를 연결하는 수행이라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공연을 통한 성장

1) 시범과 뮤지컬, 다른 무대

공연 형식과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표현 방식과 정서적 경험이 달랐다. 시범대회는 기술적 완성도와 동작 정확성이 더 강조되었고, 예배 공연은 경건함과 메시지 전달의 분위기가 강했으며, 뮤지컬은 감정 표현과 서사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같은 유관순 열사를 표현하더라도 무대 맥락이 달라지면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요소도 달라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정체성이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수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참여자라도 어떤 무대에서는 무도인, 어떤 무대에서는 배우, 또 다른 무대에서는 역사 전달자로 자신을 조정해야 했다. 따라서 공연 형식의 차이는 단지 연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참여자의 자기이해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맥락적 요인이 되었다.

2) 반복이 가져온 깊이

반복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은 유관순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화하게 되었다. 처음 공연에서는 기술적 실수나 외형적 완성도에

더 집중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연으로 갈수록 의미와 감정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이 단순한 숙련 향상만이 아니라 역사적·정서적 내면화를 심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미 패턴은 경험의 구조적 핵심을 드러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복 참여가 정체성 심화의 핵심 기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연을 거듭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흉내 내는 존재’에서 ‘그 정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존재’로 변화해 갔다. 따라서 반복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의미 심화의 시간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3) 관객의 눈물, 나의 보람

관객의 감동적 반응은 참여자에게 큰 의미와 보람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공연 후 관객이 눈물을 보이거나 직접 감사의 말을 전했을 때,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행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역사적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러한 반응은 공연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확인받는 경험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수행한 역할의 사회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위주제는 정체성 형성이 개인 내부의 자기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통해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관객의 감동을 통해 자신이 단지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 공연에 대한 동기와 책임감도 강화되었다. 결국 ‘관객의 눈물’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의 사회적 승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의 보람’은 그 승인에 대한 정서적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종합 논의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상위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는 유관순 열사 태권도 퍼포먼스가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공연 경험이 아니라 역사 인식의 심화, 신체적 체화, 정체성 확장,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적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를 새롭게 알아가고 역사의 무게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역사와 관계를 맺었고, 동작과 몰입을 통해 독립정신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이어 자신을 역사 계승자, 태권도인, 퍼포머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공연 맥락의 차이와 반복 참여, 관객 반응을 통해 이러한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유관순 열사 태권도 퍼포먼스는 참여자들에게 ‘역사를 아는 사람’에서 ‘역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퍼포머’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적 실천이었다. 이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역사교육과 정체성 교육, 문화예술교육을 연결하는 융합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태권도 퍼포먼스 참여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순이 돌아왔다」, 「사랑아」, 「조선의 불꽃」에 참여한 B대학교

태권도전공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Braun과 Clarke의 6단계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은 ‘역사와의 만남’, ‘몸으로 느끼는 독립정신’, ‘정체성의 확장’, ‘공연을 통한 성장’이라는 4개의 상위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로 구조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를 태권도 퍼포먼스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적 수준의 역사 인식을 넘어 역사적 인물의 삶과 정신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서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을 태권도 동작을 통해 신체적으로 체험하였고, 무대 위 몰입을 통해 감정적 동일시를 경험하였다. 셋째,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단순한 시범단원이나 태권도 전공 학생이 아니라, 역사를 전하는 사람, 태권도인, 퍼포머라는 다층적 정체성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넷째, 공연의 맥락과 반복 참여는 경험을 더욱 심층화하였고, 관객의 감동적 반응은 참여자들에게 공연의 사회적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유관순 열사 태권도 퍼포먼스가 단순한 무대 재현이나 기술 시연이 아니라, 역사·몸·감정·정체성이 교차하는 수행적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신체적으로 체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역사교육,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태권도

시범 연구가 주로 기술적 수행, 심리요인, 지도자 관계, 조직 운영 등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왔던 경향에서 나아가, 역사 재현 퍼포먼스 참여자의 정체성 구성 경험이라는 문화적·해석적 차원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단순한 스포츠 공연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을 재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수행적 실천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태권도가 지닌 문화콘텐츠적 가능성과 교육적 기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정체성을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수행과 반복, 맥락적 경험을 통해 구성되고 심화되는 과정적 개념으로 확인하였다.

3.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퍼포먼스는 역사교육을 보다 체험적이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대학 태권도 시범단과 공연단체는 기술 중심 훈련에 더하여 역사적 서사와 감정 표현, 상징적 의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문화행사나 기념사업에서 태권도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대 간 역사 공감과 문화적 소통을 촉진하는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B대학교 태권도전공 학생 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모든 태권도

퍼포먼스 참여자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자기보고와 회고적 진술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연 장면에서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맥락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셋째, 유관순 열사라는 특정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다른 역사 인물이나 주제를 다룬 공연 참여자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퍼포머뿐 아니라 관객의 경험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태권도 퍼포먼스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태권도와 역사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역사교육, 문화예술교육, 인성교육을 융합한 태권도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천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문희(2008),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 10인의 영재성 요소, 가정환경, 부모양육방식 특징에 대한 질적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희(2007), 「위인 그림책 주인공이 어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2호, 93-114쪽.
- 김기창(2012), 「교과서에 수록된 유관순 전기문」,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유관순 연구』, 제17권, 5-32쪽.
- 김은주 · 김정미(2018), 「위인전을 통해 명사들의 어린 시절 경험 들여다보기」,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제28권 제3호, 93-115쪽.
- 김현희 · 박상희(2008), 『유아문학(이론과 적용)』, 학지사.
- 류영하 · 신지영(2017), 『만세 소녀 유관순』, 리젼.
- 류혜숙 · 김명화(2009), 「위인동화를 활용한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역사적 사고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원 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제13권 제5호, 331-350쪽.
- 박선희(2021), 「Peter Sis의 위인 그림책에 내포된 문학적 상상력 고찰」,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25-49쪽.
- 박선희 · 한주희(2016), 「그림책의 재미 요소 탐구: 유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95-122쪽.
-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2012), 유관순 관련 제재 국어 교과서 수록

연구.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2025), 유관순 위인 그림책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서민화·이경은·허진무(2025), 여성 노인의 태권도 시범단 활동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안미라·김정아(2013), 「위인그림책 읽기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17권 제4호, 67-90쪽.

이영미(2014), 「한국그림책을 통한 유아들의 문화 읽기 과정 탐색」,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35권 제5호, 1-23쪽.

정은희·김현정(2015), 「위인동화를 활용한 유아 역사교육의 의미와 적용」,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6호, 411-432쪽.

조선학(2007), 어린이 그림책 시각 서사에 관한 연구, 『그림책연구』, 제2호, 15-44쪽.

채수미(2022), 태권도 시범단 수련생의 Big5 성격 요인과 시범 활동 경험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Braun, V., Clarke, V., & Weate, P. (2016), "Using thematic analysis in sport and exercise research. Research Methods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Yu Gwan-sun(2018),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WRAL.

Unsung Heroes of Methodism(2026): Yu Gwan-sun and Korean Methodism. United Methodist Church.

A Study on the Identity Construction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n a Taekwondo Performance Honoring Yu Gwan-sun

Won Jeong Yu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dentity construction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aekwondo performances honoring Yu Gwan-sun. The participants were five Taekwondo major students at B University who had participated in Yu Gwan-sun Returns!, Sarang-ah, and Flame of Jose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Braun and Clarke's six-phase thematic analysis. The interview guide was adapted from prior research o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experiences and revised to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nalysis produced four overarching themes and ten sub-themes: "Encounter with History," "Feeling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rough the Body," "Expansion of Identity," and "Growth through Performance." The findings showed that participants constructed multilayered identities as historical inheritors, Taekwondo practitioners, and performers while embodying Yu Gwan-sun through Taekwondo performance. Repeated participation further deepened their identity form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aekwondo performance can serve as an effective medium for history education and identity development.

Keyword: Yu Gwan-sun, Taekwondo, Performance, Identity, Thematic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 Doctor of Physical Education, Research Fellow a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Baekseok University(E-mail: 977420@naver.com)